

헛되고 헛된 옛 틀에서 전도자의 새틀로

전도서1:1-8, 디모데후서4:1-5

정운돈 목사님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신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요한 사도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음, 이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로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이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함께 하여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아마도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많은 세상적인 것을 누린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 전도서 1장 2절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 솔로몬이 고백한 헛되고 헛된 옛 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이 누렸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처음 자신이 누렸던 내용을 2장 2절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아무리 봐도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다. 그 때에는 TV가 없었지만 광대들을 보고 왕이나 귀족들을 앉히고 구경한다. 옛날에 ‘나를 웃기지 못하면 죽이겠다.’ 하는 정도로 광대놀이를 즐겨보는 왕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온갖 재주를 부리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구경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었다고 말한다. 여러분, TV, 연예 프로그램을 보고 웃었는데도 기억 남는 것이 있는가. 구봉서라는 코미디언이 TV에서 말하기를, 자녀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코미디언인 줄 몰랐다고 한다. 집에서는 가부장적, 권위 있는 아버지였던 것 같다. 나중에 알고서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역할을 너무 잘 하셨다. 그런데 코미디언들 중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모습을 많이 봤다. 본인은 그렇게 억지 웃음을 짜냈지만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것이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가짜 웃음인데.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예능 프로그램 다 헛된 것이다. 끊고 말씀 듣고 성경을 읽으라. 음악도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 쉽게 말해서 한 마디로 표현했다. 아마 코미디언들이 들으면 맞다고 할 것이다. ‘코미디언이 되는 것은 미친 것이야.’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마음은 참 훌륭하다. 그렇게 힘든 개그맨의 길을 걷는데도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복음임을 믿기를 바란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개그맨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본업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업이다. ‘회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헛되다고 고백한 것이다. 2장 3절부터 10절까지 솔로몬 왕이 누렸던 내용들을 말한다. 2장 3절 중간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렇게 하려고 온갖 술을 다 마셨는데 다 헛되다는 것이다. 2장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 내용을 앞의 내용과 연결하다보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 왕이 산업을 크게 한 이유가 술을 많이 먹으려고 한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술 많이 먹으려는 것, 사업하는 이유가 술 많이 먹으려는 것이다. 옛날에 삼촌은 어디가서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다. 그 목적이 담배 피려고 하는 것이다. 담배를 끊으면 되는데, 피는 것이 인생의 낙인 것

이다. 건강을 해치니까 담배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피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이다. 그런 분들 많다. 병 안 들고 많이 술 마시기 위해서 좋은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한다. 사업하는 이유도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것이다. 대부분이 그렇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2장 5절에 보면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으며.’ 또 2장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외도라는 섬에 가면 수목원들이 많다. 그 수목원의 원조가 솔로몬이다. 삼림을 하기 위해 많은 집을 갖더니 화초를 키우는 분들이 많다. 그 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화분을 키우지?’였다. 우리 가족은 먹는 야채 빼고는 다 싫어한다. 인간생명만 좋아한다. 어떤 집사님 집에 가니까 텃밭이 있다. 몇 년 됐냐고 물었더니 3, 4년 되었다고 한다. 대단하시더라. 자연친화력지수라고 있는데, 그 지수가 높은 분들은 나무와 호흡을 같이 한다. 나무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잘 키울 수 있다. 전정아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무가 목마르면 느껴진다고 하신다. 우리는 전혀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다.(웃음) 솔로몬은 이런 정서도 있었던 것이다. 2장 7절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건강한 종이 재산이었다. 왜 종을 낳기도 했는가. 미국에서 노예가 그런 것이다. 노예 중에서 건강한 여종과 남종을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아서 건강한 노예를 만든다. 지금 시대에는 농구선수나 스포츠 선수들 중에 미국에서 흑인들이 많지 않은가. 이유가 무엇인가. 강제 종자 개량해서 그렇다. 역사기록을 보면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건너오는 중에서 약한 사람들은 죽었고, 와서도 종자 개량을 한 것이다. 그 때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재산이었다. 2장 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2장 8절에 보면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냥 금은보화 몇 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물섬처럼 잔뜩 쌓았다는 것이다. 금고개 꼭 차 있었다. 또 2장 8절에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왕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고 첩이 삼백 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전 세계에서 미인인 여자들을 다 아내, 첩으로 삼은 것이다. 전도서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창성하여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내 지해도 여전하도다.’ 기분 나쁘다.(웃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는데 머리도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2장 10절에 이야기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었다. 지해도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2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 모든 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깨닫게 된 참된 새 틀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다.

(1) 솔로몬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추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의 어원은 ‘설교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결론과 답을 냈다. 이 모든 것을 했는데도 만족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로 남았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전도자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전도자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은 ‘모으는 자’라는 뜻이다. 그 의미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지만 ‘모으는 자.’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이다.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 지교회 사역자, 목회자인 것이다.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역이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새 틀 안에 있는 사람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1장 9절-10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반어적인 의미도 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청년들이여,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타락하고 싶은 대로 타락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줄을 알라.’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약간 돌려서 말하는 험박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램넨트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라. 여러분 망하고 감옥 간다. 잠시뿐이지 행복하지 않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일, 직장, 공부도 힘들지만 성실하게 해내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예배에 충실하게 살아보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솔로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전도서에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허무주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것 먹고 학교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그 돈으로 집도 사고 결혼도 하라. 작지만 행복한 것이다. 한국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다이어트하면서 먹을 것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다.(웃음) 세계여행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은가. 말은 세계복음화인데 사실은 놀러가고 싶은 것 아닌가.(웃음) '그것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내가 먼저 해야 할 본업에 충실해라. 노력만 해도, 몸부림만 쳐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방종하고 방입하며 살면 안 된다.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나의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분명히 이 땅과 하늘에서 심판하신다.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비둘기 살아가면 그만큼 문제가 온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계속해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치유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실 많은 영광과 축복을 받을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의 육과 삶이 치유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청년의 때에 곤고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많은 분들이 사기에 넘어간다. 쉽게 돈 벌 수가 있는가. 다 사기이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공짜가 어디 있는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니 당하는 것이다. 탐과 노력을 해서, 시간을 써서 얻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인 것이지 헛되게 번 것은 금방 날아가게 되어있다. 여러분에게 쉽게 사주는 사람은 의심을 해야 한다. 과거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맛있는 것을 사준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줬던 것이다. 여러분에게 막 사주는 사람, 쉽게 사주고 돈을 쓰는 사람들은 그 돈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생살에 못 박히고 멸시를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피를 쏟았지만,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8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왜 그러셨는가. 제자를 제대로 세우고 가려고. 예수님도 자기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다락방, 지교회, 제자사역에 힘쓰셨다. 그 결과는 영광이다. 여러분이 다락방하고 복음 전하는데 시간 쪼개고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일도 다 하고 공부 다 하고 모임에도 참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체력도 많이 소진된다. 그러나 해야 한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포기하면 안 된다. 주어진 전문성, 공부, 자격증, 건강관리. 건강관리의 이유가 무엇인가. 술 많이 먹으려고 건강관리해서는 안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쉬는 것도 잘해야 한다. 말씀 준비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3. 새 틀의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결론적인 이야기이다.

(1)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 어른,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방종이다. 그런 분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어른들을 봤을 때도 예의를 갖추어 줄 알아야 하고 상관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어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망하는 세상이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섰을 때는 함부로 안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전에 박사과정을 공부하는데 한 교수님께서 성질이 보통이 아니셨다. 그 분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면 수업을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릿듯 해야지!' 하셨다. 대학교수가 그렇게 말하니 설교를 듣는 줄 알았다.(웃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 수업을 들을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다 교회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야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옛 틀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새 틀로 변화할 수 있는가.

1. 나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가장칠인 십자가의 도를 항상 목상해야 한다. 예수님이 당신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주셨고 회생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 중심, 내 뜻,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축원한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야 한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만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돈이 없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당장 오늘 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 돕기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행복이 밀려올 것이다. 그런데 항상 갈급하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만을 위해서,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생각을 해 보셔라. 얼굴에 웃음 자체가 없다. 왜냐?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길 바란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요한1서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 사랑의 뿌리를 아시길 바란다.

2.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솔로몬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한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다 가져보고 해 보았다. 그러나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다.

3.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진정한 성공자는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다. 진정한 성공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성공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4. 옳고 그름의 기준도 바꿔야 한다. 청소년 시절에 저는 굉장히 울법적이었다. 전도할 때도 마음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꼭 유대인 같았다.(웃음) 친구들 전도할 때도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데 인간이냐." 하면서 전도하면서 끌고 다녔다. 그런데 저의 기준과 모든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사건이 생겼다. 어려운 애들에게 다 사주고 도와줬는데 저의 지갑을 훔쳐가더라. 제 물건들이 자꾸만 없어지더라. 밥 사주고 도와주고 말씀 전했는데 뒤뚱수를 때리는 것이다.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네 모습이 그 모습이다.' 발견이 되어졌다. 틀이 다 깨지는 것이다. 저와는 안 맞는 일이 계속 생긴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저의 기준을 깨뜨리셨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을 깨트려서 기준을 바꿔라.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의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란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기도해 주신 것 같이 기준을 바꾸시기 바란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준을 가정 안에서 부터 바꾸시길 바란다. 성경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의 판단, 기준, 틀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린다.

5. 만족의 기준도 바꾸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지 만족하겠는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길 축원드린다. 이렇게 했을 때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헛되고 헛된 기준을 바꿔 버리고 변화된 솔로몬처럼 참된 성공자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적인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방향을 저희들에게 정리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전도자의 삶에 계속 도전하여 시몬이 베드로로 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사역하는 가운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변화를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보통 14k, 18k, 금이 아닌 정금과 같은, 욕이 누렸던 그 믿음과 체질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그 응답이 바로 참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큰 응답으로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